Geopolitical Monitor

미국,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희토류 보고서 작성

미국 국방부,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희토류 보고서 작성 (Reuters, 19.5.29)

- 미국 국방부,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
-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
-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, 의회, 산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발언
-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는 중국이 희토류를 활용한 무역 보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나옴
- 미국 국방부는 2018년 미국 국방산업기지의 취약성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해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음
- 한편, 중국 인민일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중국에서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상품이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데 사용되면 불쾌할 것이라고 보도

존 볼턴, 유조선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(Bloomberg, 19.5.29)

-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에게 미국의 이익을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
-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를 이용하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
- 유조선 공격에 대해서도 이란을 비난. 볼턴은 오만해에서 유조선 4척이 공격을 받았고 배후가 이란이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발언.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공격자들이 이란에서 온 해군 기뢰를 사용했다고 밝힘
- 또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이란이 저농축 우라늄을 저장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핵무기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발언
- 이러한 위험한 행동은 미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힘
- 한편, 이란은 강력 반발.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볼턴을 전쟁광이라고 언급하며 이란의 반대 세력에 의한 파괴적인 계획이라고 밝힘

물러, 특검 수사의 한계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 (FT, WSJ, 19.5.29)

- 물러 특검, 대통령이 명확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발언. 트럼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힘
- 또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헌법에 위배되며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특검 팀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다고 밝힘
- 민주당의 증언 요청에 대해 물러 특검은 보고서가 그 증언이며 대통령에 대한 다른 결론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달
- 법무부는 헌법에 따라 의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잘못됨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범죄 혐의는 대통령이 퇴임하거나 해임된 후에 제기될 수 있다고 전달
-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특검 보고서와 다르게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. 그러므로 무죄이며 이번 건은 종료되었다고 밝힘.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특검은 조사를 마쳤고, 특검 사무실은 닫았으며 이 사건을 종료했다고 밝힘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